



APEC/PECC KOREA NEWSLETTER



한국APEC연구컨소시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460-1031 FAX : 3460-1133
APEC 문의 : kslim@kiep.go.kr | KOPEC 문의 : kopec@kiep.go.kr

■ 발행인 : 蔡旭 ■ 편집인 : 金尙謙

Vol. 14. No. 3. 2011년 9월

2011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논의주제

▶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차세대무역투자이슈의 주요원칙과 핵심내용, 역량개발 계획 논의, 수입상품의 최소면세기준 설정 논의와 우선실시 5개국, ANSSR에 대한 회원국별 초안 제출

▶ 녹색성장 촉진

2012년까지 환경상품의 관세상한 5% 설정 등 환경상품서비스 자유화 방안의 집중 논의, 재제조품의 무역원활화 선구자 이니셔티브 논의

▶ 규제수렴 및 협력증진

역내무역투자 원활화를 저해하는 상이한 규제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규제조정기구 설립과 규제영향 평가, 공공참여 도모의 필요성 공감

APEC SOM 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의 및 관련회의

2011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의 및 관련회의는 9월 25~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3대 중점 우선과제인 1)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2) 녹색성장 촉진, 3) 규제수렴 협력증진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 진전시켜 11월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차세대무역투자이슈인 1) 글로벌공급망(Global Supply Chains) 촉진, 2) 중소기업의 글로벌생산망(Global Production Chains) 참여증진, 3)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이고 시장주도적인 혁신정책 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substantive and specific outcomes) 달성방안과 더불어 차세대무역투자이슈가 포함해야 할 주요원칙과 핵심내용, 역량개발 계획이 논의되었다. 회기간 협의를 거쳐 11월 최종고위관리회의의 이전까지 제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급망연결의 달성방안으로 수입상품의 최소면세기준 설정 논의에 따라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5개국이 이를 우선실시하고, 여타 회원국들은 추가참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에 따라 회원국별 향후 5개년 구조개혁계획 초안이 제출되었다. 또한 한국은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와 노동시장 개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세 가지 분야를 향후 구조개혁 5개년 우선분야로 보고하였다.



녹색성장 촉진

2012년까지 환경상품에 대해 5% 관세상한을 설정하는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그러나 회원국의 의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향후 추가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2009 APEC 환경상품서비스 작업프로그램(2009 EGS Work Program)”의 추진상황이 보고되었고, “APEC 환경상품서비스 기술확산 실행계획(APEC EGS Technology Dissemination Action Plan)”을 개발하자는 중국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실행계획은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정책협력(policy cooperation), 기업참여(business involvement)의 세 가지 주요분야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회원국이 제안하도록 하였다. 재제조품의 무역원활화 선구자 이니셔티브가 논의되었다. 재제조품의 무역장벽철폐 제안에 대하여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미국이 우선참가하기로 하였다.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첨단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 제안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면세 등 수입절차 간소화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철폐에 대한 APEC의 진전상황이 발표되었다. 이외에 새로운 에너지집중도 감축목표 지원과 저배출 개발전략(Low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논의가 이루어졌다.



규제수렴 및 협력증진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역내규제체계가 역내무역투자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1) 규제조정기구를 설립하고, 2) 규제영향을 평가하고, 3) 공공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모범규제관행의 이행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각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여 역량 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상호운용 표준에 관한 APEC 규제협력 진전 메커니즘 제1차 대화(APEC Regulatory Cooperation Advancement Mechanism Dialogue on Interoperability Standards for Smart Grid)”에서 제기된 제안사항이 승인되었다. 또한 표준과 적합 평가를 통한 태양열기술 무역원활화와 녹색건물 등에 대한 권고사항이 승인되었다. 미국은 혁신농업 기술을 도모하는 제안서 등을 발표하였다.



A P E C

최근행사

Policy Dialogue for Developing REI Capacity Building Needs 역내경제통합 능력배양 수요를 위한 정책 대화 (2011. 9. 22, 미국 샌프란시스코)

2009년 APEC 정상 성과사업인 “FTAAP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연구”가 한국의 주도로 추진되어, 2010년에 이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지역경제통합(REI)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수요연구”가 추진되어 한국은 수요조사 분석결과를 2010년 11월에 회람하였고, 2011년 3월 CTI1 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통합(REI)을 심화할 수 있는 실행 아젠다 첫 번째 단계로서 개도국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필요한 회원국의 다양한 Need를 분석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개도국의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5월 CTI2 회의에서 한국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다년간의 실행계획(multi-year action plan)을 제안함에 따라, APEC 분과(sub-fora)와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국제기구, 회원국들과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는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CTI로부터 승인받아 2011년 9월 22일에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 칠레, 호주, 월드뱅크(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추진한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추진경과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한국이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능력배양사업을 KOICA와 캄보디아 상무국(Ministry of Commerce)이 2004~2005년까지 추진한 결과, 대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이 지대하게 기여함이 확인되었고, 확실한 사업목표 이해와 지침이 국가의 무역개발정책과 일치할 때 매우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칠레는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기관과 민간부문, 시민과의 내부조정(internal coordination)을 통한 합의(consensus)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였다. 특정 민감/취약분야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의 실행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와 방법론적인 측면도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능력배양은 새로운 협상을 시작함

에 있어 긴장(anxiety)을 완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호주는 ASEAN-호주-뉴질랜드 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정도와 접근방식 등의 다양성과 ASEAN 국가들과 또는 ASEAN 국가들 간의 내부조정 이 도전과제였음을 밝혔다. 또한 보다 포괄적인 FTA를 원하는 호주는 달리 지식재산권이나 경쟁 정책, 전자상거래, 통신과 같은 분야는 ASEAN 국가들에게 새로운 분야이거나 능력한계에 마주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이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적인 연계(practical relevance)가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ASEAN과 맺는 가장 포괄적(comprehensive)인 FTA가 가능했음을 성과로 지적하였다.

월드뱅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별, 지역적 요인별 선택적인 프로그램들과 구체화시키는 접근방식체계를 설명하며 다양한 지식기반(knowledge platforms)과 대화(dialogues), 호혜무역협정과 무역 정책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e-learning 등을 소개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능력배양작업으로 무역데이터 베이스와 FTA 분석도구, 지역무역과 FTA에 대한 다양한 연구,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한 훈련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소개하였다. ADB와 APEC과의 차세대 무역이슈와 지역차원의 FTA를 위한 공동훈련프로그램과 연구 등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2010년에 추진한 “역내경제통합 능력배양 수요조사(REI Capacity Building Needs Survey)”의 결과를 반영한 정책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새로운 이슈인 전자상거래(e-commerce), 노동, 환경분야와 전통적인 이슈인 지식재산권, 투자, SPS, 원산지분야가 주로 회원국들이 어려워하는 분야(challenging sector)로 규명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주로 전문지식과 인적·재정자원의 부족이 꼽혔고, 향후 협상과 실행에 있어 주요과제로 예상되는 부분은 합의 이끌어내기(consensus building)

와 국내제도의 역량부족, 구조개혁, FTA/RTA 혜택 확산(outreach) 문제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고 기존에 APEC이 추진해온 주요활동을 조명하여, 한국은 우선과제분야를 규명하여 각 분야에 대한 주도국(lead economy)을 설정한 후, 주도국에 의한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세워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이 제안한 정책시사점에 대한 회원국들을 비롯한 ABAC, 국제기구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결과,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회람하여 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s 최종고위관리회의

(2011. 11. 8~9, 미국 호놀룰루)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23rd APEC Ministerial Meetings 제23차 APEC 합동각료회의

(2011. 11. 11, 미국 호놀룰루)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19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제19차 APEC 정상회의

(2011. 11. 12~13, 미국 호놀룰루)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PECC



최근행사

PECC 상임위원회 및 관련회의

(2011. 9. 27~28, 30, 미국 워싱턴 D.C)

2011년도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상임위원회 및 관련회의가 9월 27~28, 30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0차 PECC 총회와 연이어 개최되었다.

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20일과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던 PECC 상임위원회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재무보고 및 2012년 예산(안)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PECC 상임위원회는 PECC FUND LIMITED의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 및 개최하였다.

주요 PECC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 및 향후 프로젝트(안)에 대한 소개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임위원회 멤버들은 새롭게 제안된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하고 간판 프로젝트에 동의하며 추후에 진행할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관심분야에 관해 토의하였다. 아·태지역연례현황보고서(State of the Region (SOTR) Report)는 편집위원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PECC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제통합의 지표는 지역의 무역변화양상에 따라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여 깊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SOTR은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아젠다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일본 도쿄에서의 총회에서 CTPECC는 “Examining the Mid and Long Term Structural Unemployment in Asia-Pacific”이라는 국제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2011년 10월 13~14일 CTPECC는 26번째 Pacific Economic Community Seminar를 개최하기로 예정 중에 있다. 호주 국립대학, 홍콩 대학, 상하이 재경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석이 예상되며 동료 검토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이며, 최종보고서는 올 연말에 완성할 것을 계획 중에 있다. FPTPEC가 계획 중인 프로젝트로는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가 있다.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해양자원의 음식, 의학, 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과 과학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음을 짚고 이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에 실시되었던 “Microfinancial Linkages and Financial Deepening”에 이어 “PEO Monetary Policy Regime”을 계획 중에 있다. 이것은 통화정책과 그것이 태평양지역 선진국과 개도국에 끼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살피기 위한 것이다. JANCPEC 주도 하에 진행되는 Social Resilience Project는 2009년도에 국제프로젝트로 공식승인받았으며 관련회의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제 20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2011. 9. 29~30, 미국 워싱턴 D.C.)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의 제20차 총회가 9월 29~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아·태지역현황(State of the Region)”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총회는 4개의 전체세션과 3개의 동시세션을 통해 크게 아·태지역 전망을 살펴본 후 지역역학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지역경제협력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열린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총회의 주요연사로 주 밉롱(Zou Mingrong) 전 대사이자 CNCPEC 부회장, 로베르토 카다렐리(Roberto Cardarelli) IMF 수석경제학자, 유엔 파 우(Yuen Pau Woo)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 회장, 탄 키 지얌(Tan Khee Giap)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뉴질랜드 미국대사, 케빈 지안준 투(Kevin Jianjun Tu)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수석연구원, 데이비드 흥(David Hong) 대만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세바스찬 세즈(Sebastian Saez) 월드뱅크 경제수석연구원, 림 잭 호이(Lim Jock Hoi)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사무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KOPEC은 영문에세이 콘테스트를 거쳐 청년대표단(Youth Delegation) 3명과 KOPEC 김상겸 사무국장 등 총 5명이 KOPEC 대표로서 참여하였다.

총회의 발표자료 및 결과는 홈페이지(www.pecc.org)에 게재되어 있다.



Oceans at Risk: Protection from Ocean
to Coast, Sharing Marine Resources
Noumea, New Caledonia
(2011. 11월 중)

K O P E C



최근행사

KOPEC 아태전략포럼 제2차 회의 (2011. 7. 6)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외교 통상부의 후원으로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APEC 구조개혁(ANSSR) 우선순위 과제선정 논의”를 주제로 2011년도 제2차 아·태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APEC 신 구조개혁전략과 관련하여 각 부처별 입장을 듣고 그에 대한 이해 및 APEC 정상회의의 아젠다 준비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2011년 회원국별 구조개혁 우선추진분야를 자발적으로 선정하여 작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었기에 한국의 우선추진분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정부 측 부처별 연사들과 민간전문가들 총 21인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APEC 구조개혁은 1997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 국경조치뿐만 아니라 국내조치로 자유화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었다. “2005~2010년 간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회의 제(LAISR)”가 5개 우선분야로 추진되었고 이에 대

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졌다. 작년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구조개혁작업을 추진하고자 “APEC 신 구조개혁전략(ANSSR)”을 본격적으로 SOM 차원에서 직접주도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규제는 제도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여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하였다. 시급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우선순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하였다. 구조개혁의 사안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복잡해지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어떠한 규제개혁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예전에 없었던 구조개혁의 초점은 금융구조의 재정건전성이 5대 핵심분야로 선정된 것과 사회안전망 이슈와, 노동·여성·직업재교육 등 사회문제에 중점을 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고위급관리들이 직접검토와 관리를 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하였다.

우선순위 선정에 앞서 한국의 기준을 잘 수립한 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

큰 분야와의 확산효과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과제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Cross-cutting issue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정과제와 부합되어야 하고, APEC의 공동이슈와 연계되면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과제가 APEC의 모범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능하다면, 확실한 성과지표가 제시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논의하였다.

APEC 내에서 한국의 역할이 pathfinder가 될 것인지, 미국이 제시한 틀 안에서 회원국과 공유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미국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들이 벤치마킹으로 활용가능한 사안들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State of the Region 서베이 요청

(2011. 8. 5)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PECC 역내 거시경제현황 및 주요국 통상이슈 보고서인 State of the Region(SOTR) 작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관계, 재계, 학계, 언론계 리더들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 설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PECC 23개 회원국들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는 올 11월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시 발표될 예정이다.

KOPEC Youth Delegation 선발을 위한 영문 Essay Contest 결과보고

(2011. 8. 18)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태평양경제협력의 정책에 대한 홍보교육 차원에서 2011년 9월 27~30

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있을 PECC 제20차 행사에 KOPEC 대표단의 일원으로 청년대표단(Youth Delegation)을 구성하기 위해 영문 Essay Contest를 실시하였다. “The Future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을 주제로 개최된 에세이 콘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자는 아래와 같다.

1등 선지혜(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생)

2등 강성혜(이화여대 국제학부생)

3등 조인서(고려대 국제대학원생)



KOPEC 아태전략포럼 제3차 회의

(2011. 11월 중, 서울)

회의 관련 문의사항이나 자료는
 KOPEC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0 Fax: 02-3460-1244
 E-mail: kopec@kiep.go.kr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11-2012
- Growing APEC Economies: New Challenges and Approaches, 2011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10
- Towards a More Resilient Society: Lessons from Economic Crises, 2010
-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ailand, Narongchai Akrasanee, 2010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orum Report,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2010
- Workshop on Measures to Promot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2010
- The Globalisation of Education: The Next Wave, PECC & APRU, 2009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Market Volatility and the Food System, Pacific Food System Outlook Project, 2009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9
-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KOPEC & ISEAS, 2009
-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Synthesis Report, KOPEC, 2009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8
- Labou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Dynamics, Issues and a New APEC Agenda, KOPEC & ISEAS, 2008
- Demographic Change and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 Implications for Busines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ynthesis Report, KOPEC, 2008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7
- An APEC Trade Agenda: The Political Economy of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PECC & ISEAS, 2007
- Guidelines for Effectiv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2007
- The Polic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MEs, 2007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6
- The Evolution of PECC: The First 25 Years, 2005
- Towards a Pacific Community: Renewing the Commitment (proceedings of PECCXVI), 2005

- Finance

- ▶ Impediments to Cross-Border Investment in Asian Bonds, PECC & ISEAS, 2005

- Trade

- ▶ Study on the Mutually Supportive Advancement of APEC's Trade Facilitation and Secure Trade Goals post September 11, 2005
- ▶ Papers on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 Memory of Bijit Bora, 2010

- Outlooks

- ▶ Pacific Economic Outlook Structure Project: Macrofinancial Linkages and Financial Deepening in the Pacific Region, 2011
- ▶ Pacific Economic Outlook: External Adjustments under Increasing Integration in the Pacific Region, 2009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8-2009: Climate Change and the Food System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7-2008: Linkages to growing urban markets spur rural development, 2007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5-2006: A Revolution in Food Retailing, 2005
-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5-2006, 2005

PECC, KOPEC 회의 관련 자료 및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곽소영 연구원) Tel: 02.3460.1240 Fax: 02.3460.1244 E-mail: kopec@kiep.go.kr